



ID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대통령기록관  
16년 대통령 웹기록  
참여정부자료실  
청와대브리핑

봉하마을  
봉화살  
한국미래발전재연구원  
추모페이지

▶ 말과 글

봉하마을 참맛을 보고가세요.

조회수 : 148184  
등록일 : 2008.03.06 13:11

저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대문 앞에 나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힘들지만 반갑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손님들은 봉하마을에 와서 저의 생가 보고, 우리 집 보고, 그리고 '나오세요.' 소리치고, 어떤 때는 저를 한 번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참 재미없겠다 싶은데, 그래도 손님은 계속 오십니다.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를 느낄만한 우리 마을의 명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봉하마을의 명물은 봉화산입니다. 봉화산에 올라가지 않고는 봉하마을 방문은 헛일입니다. 봉화산은 참 아름답고 신기한 산입니다. 해발 150m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이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사방이 확 트입니다.



멀리는 겹겹이 크고 작은 산이 둘러 있고, 그 안으로 넓은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들 가운데로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을 볼 때마다 저는 손을 뻗어 잡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밭 아래에는 손바닥 만한 작은 들이 있고, 그 들을 둘러싸고 옛날 아내와 함께 소설 이야기를 하며 걸어 다니던 독길이 장난감 기차 길처럼 내려다보입니다.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걸어보고 싶습니다.



동쪽으로 조금 멀리는 동양에서 제일 큰 습지라고 하는 화포천이 보입니다. 여기 저기 상처를 많이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태계의 신비함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누런 갈대만 보이지만, 봄이 되면 온갖 풀꽃이 파랗게 싹을 내고 색색의 꽃을 피웁니다. 그 중에서도 흐드러지게 핀 창포는 가슴을 들뜨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철새들이 하늘을 새까맣게 가릴 만큼 내려앉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옛그제엔 기러기 몇 마리가 줄지어 날아가는 반가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옛날의 그 오리, 기러기들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봉화산은 산이 높지 않고 능선이 부드럽워서 산책처럼 등산을 할 수 있는 산입니다. 산이 크지는 않지만 제법 깊은 골짜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산 능선에는 여러 군데 제법 너른 마당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아가자기한 재미가 있습니다.

독길을 걸어서 화포천까지 갔다가 들판을 한 바퀴 돌아오면 한 시간, 마에불을 거쳐 봉화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시간, 자은골로 걸어서 봉화대-관음보살상을 거쳐 도둑골로 내려오면 두 시간, 계속 걸어가서 재실 앞 냇시터를 거쳐 화포천까지 갔다 오면 두 시간, 화포천을 지나 뽕산을 돌아오면 세 시간, 이렇게 조금씩 욕심을 부리면, 1박 2일을 해도 모자랄 만큼 코스는 풍부합니다.



이 산책길에서 가끔 저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하면 좀 더 재미가 있겠지요. 단지 대문 앞 관광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재미있는 봉하마을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봉하마을 오실 때는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게 등산화를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밥 먹을 곳도 없고 잠 잘 곳도 없어서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만, 올 해 안으로 밥 먹고 잠 잘 곳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아름다운 숲, 자연학습 환경, 재미있는 운동거리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봉화산은 어릴 적 인근 10리 안에 있는 학교들의 단골 소풍 터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학습과 놀이터가 되도록 가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봉화산을 많이 오르면 김해시에서 산을 가꾸겠지요. 여러분이 화포천을 많이 찾으면 나라에서 화포천 정화를 서두르겠지요.

오늘은 마을 사람들과 김해시 봉사단체들과 화포천 주변 청소를 나갑니다.

어제 김해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여러분의 방문이 김해시를 움직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빠른 메뉴  
글로벌네트워크  
부산지역위  
광주지역위  
제주지역위  
전북지역위  
대구·경북지역위  
전남지역위  
대전·충남지역위  
동호회  
봉하 오는 방법  
모역 안내

9이달의  
비밀화면  
오늘 하루 열지않음

니다. 김해시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8년 3월 6일 노무현



총평 252개

몬느 2008.03.06 13:23

글이 음성 지원이 되나봅니다;  
자동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봉하마을에 꼭 가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누리누빔 2008.03.06 13:28

21세기형 선비  
조선시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유배내지는 낙향을 하였던 수많은 울긋은 선비들이 있었기에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에서 위대한 인물  
이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모습에서 과건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녹아짐 2008.03.06 13:29

와아~~  
또 글이 올라왔네요.너무 좋아요^^  
저 3등 맞지요~~

돈나무 2008.03.06 13:30

세번째 글까지 잘 읽었습니다^^  
하~ 글도 참 잘 쓰시네요^^ 봉하마을의 아기자기하고 다정한맛이 느껴집니다.  
봄을 실어오는 바람이 아직한 차가워요..건강조심하시고..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hawaii 2008.03.06 13:34

ㅎㅎ 썬스겐이 몬느님~ ㅎㅎ  
ㅎㅎ

우리함께 2008.03.06 13:34

봉화산의 봄이 기다려 집니다.  
우연히 산책하다 뵈고 싶습니다.

우리함께 2008.03.06 13:34

봉화산의 봄이 기다려 집니다.  
우연히 산책하다 뵈고 싶습니다.

확률과 통계 2008.03.06 13:34

알고 보니, 수필가 이시네요.  
글을 이렇게 예쁘게 쓰시는 줄 몰랐어요.

hawaii 2008.03.06 13:35

봉하 마을 주민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주머니만 부자 말고, 마음 부자~ ㅎㅎ)

청나 2008.03.06 13:35

봉화산 그림 인가요? 산이 이쁩니다 ^^  
봉화산 등산 가려고 또 봉하마을 내려가야겠네요

째리 2008.03.06 13:36

내 고향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더 추억에 남은 여행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대통령님의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어릴 적 내고향의 모습을 잠시 상기해 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대불연 2008.03.06 13:36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 방문할 계획입니다  
추천해 주신 코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빈아빠 2008.03.06 13:36

동료가족과 함께 저희가족도 이번 주말에 봉하마을 구경합니다.  
운이 좋아 뵈수있는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죽림일현 2008.03.06 13:36

계절마다 한 번씩 놀러가도 될듯 합니다.  
1년에 네번쯤 아이들 하고 놀러가도 되겠습니다,얼른 숙박시설 만들고 봉화 특산 음식도 만들어주세요. 정말 꽃피는 봄이 기다려  
집니다.대통령님 건승하십시오.

이영중 2008.03.06 13:37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은 우리 어머니의 품이지요  
대통령님께서 다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푸르게 피어나는 자연처럼 대통령님께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미기 2008.03.06 13:37

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올 여름 방학이 기다려 지네요

각설탕 2008.03.06 13:49

봉하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위의 말씀하신 곳은 꼭 가 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하나 하나 고쳐 나가시듯이 제가 방문 했을때는 잘못된 먹은 곳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1 2008.03.06 13:50

김해로 이사가고 시포요~~^^\* 노짱님 곁으로~~^^  
그래서 노짱님과 함께 자연도가꾸고 생기넘치는 농촌마을에서 살고싶네요^^

인제사랑 2008.03.06 13:58

대통령님 말투로 큰소리로~~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보고 얼른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기분 좋은 글입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포슈 2008.03.06 14:05

저번 방문은 헛일이었으니 이번은 확실하게 다녀와야겠네요,,  
그저 대통령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등산길에 다시 뵈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랫마단 2008.03.06 14:08

대통령님...매일 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물론 힘드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좋겠다는 거예요. ㅎㅎ

사노라면1219 2008.03.06 14:12

두번다녀온 봉하마을.....세번째엔 봉화산까지....  
꼭 봉화산만은 올라가볼랍니다. 싸랑해요.. 존경해요.... 늘 지금처럼 사시와요

끼리코 2008.03.06 14:18

등산화 신고.....^^\*  
낮지만 그래도 산은 산이지요. ㅎㅎ  
지난번에 갔을 때는 차림이 불편해서,  
봉화산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등산화 신고 편안한 차림으로 가서,  
말씀하신 모든 곳 꼼꼼하게 둘러 보겠습니다.

아...빨리 잠자리가 해결되어야 할텐데...^^\*

허니랑 2008.03.06 14:18

너무 가고싶어요  
거리가 먼관계로 참았다가 나중에 좀 더 한가해지시면 내려갈게요

pianoman 2008.03.06 14:23

생각난---다 그 오솔길  
이 노래가 생각나는 글이에요 여름휴가는 무조건 봉하로 달려갈거예요

산마을 나야 2008.03.06 14:23

25일 퇴임식날 봉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봉하마을에 도착해서 사저 사진 찍고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것 보다가  
앞을 보니 봉화산이 보였습니다  
원래 등산을 아주 좋아했는데 요즘 등산을 못했었던  
옆에 있는 시민광장 회원 꼬셔서 봉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아침 산책로로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붉은호빵 2008.03.06 14:29

노짱님...고맙고, 그럽고... 저도 곧 봉하에...  
이사 가고 싶어요~

노짱님...조만간 꼬옥 뵈러 갈게요.. 너무 그럽고 보고 싶어요. ^^

가람^^\* 2008.03.06 14:41

좋은 생각은 향기가 나나봅니다.  
^^\*

사람이되자 2008.03.06 14:44

저도 12월에 봉화산에 올랐습니다. 탁트인전망 좋았습니다  
봉화산 전망이 참 좋았습니다. 사방이 탁트였습니다.  
호미든 관음보살상도 인상깊었습니다.  
오래전 선사시대부터 하늘에 제사지내던 신성한 곳이라는 뜻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애들과 화포천에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청순세련 2008.03.06 15:16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봉화 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나보고 싶다.  
순수하고 소박한 그 분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져 모든 일이 잘될 것만 같다.  
대통령을 하실 때의 모습과는 달리 편안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자연을 살리시려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서침사 2008.03.06 16:01

봉화 마을이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어요..  
^^

야간비행 2008.03.06 16:14

아내와 아이들 손잡고 꼭 가보고 싶어요.....  
아내와 아이들 손잡고 꼭 가보고 싶어요.....봉하에서 노짱님을 뵈면 더 감격스러울것 같습니다.

이장 2008.03.06 16:18

^--^  
노무현대통령님, 자~알 읽었습니다. 벌써 네번째 편지가 기다려집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뿌리엄마 2008.03.06 17:22

봄나들이 삼아 한번 꼭 가고 싶어요~!  
따뜻한 봄날.. 모처럼 나들이 삼아.. 꼭 가보고 싶네요..  
저희도 가서 "나와주세요~!" 하고 소리치면 누가 되겠죠?ㅎㅎ

바위1 2008.03.06 18:29

평화로운 봉화 마을이 보입니다. 특히..  
예전에 아내와 함께 소설 이야기 하며 다니시던 특유의 정취가 좋습니다.  
운전대를 넘기시고 버스 뒷편에 앉아 잠시 시골길의 정취를 살피시는 여유로움도  
좋아 보이구요...

나주 2008.03.06 21:33

꼭 가보고 싶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직은 못가지만 애들 데리고 꼭 가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 뵈고 싶어요

군산꼬마 2008.03.07 02:58

사회에 어른을 기대합니다!  
가치관이 다양해진것 같아요. 현실의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모두의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두고 싶어할 적에 어른이 힘들지만 나서서 ""어힘! "하고 한말씀하실분이 생겨서  
진 참 행복합니다. " 어힘!, 하고 야단쳐 주셔요,,, 참고,참고,참으시다가요!  
3번忍,忍忍 하시고요, 이전에 그랬던 것 처럼.... 좋다..

세상 2008.03.07 03:40

~봉~!하~!는 복도 많다~!!!  
마을이...어디 붙어있는줄도 몰랐는데..  
지구촌^^ 사람들이..몰려오게 된네요.  
노통이 계신곳은.."태풍의눈"

노짱홀릭 2008.03.07 09:05

봉화산 정말 좋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주 가는 곳인데 산딸기, 고사리, 도토리 등등  
늦봄이 되면 산딸기 따먹으러 자주 가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노대통령이 계셔서 더 정감이 가는 곳...

dc음 2008.03.07 10:04

세번째 글도 잘 봤습니다. 노통님. rss 기대해 봅니다.  
말과 글에 올라오는 글을 놓칠새라 매일 들러 봅니다.  
rss로 말과글에 올라오는 글들을 좀 올려주시면 rss리더로 편하게 대통령 글을 편히 많은 사람이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xml 올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수니택 2008.03.07 10:23

아가 낳고 곧 갈게요. 그 날이 코끝 시큰해지도록 기다려집니다.  
여전히 남편과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라 부른답니다^^

우주여행 2008.03.07 10:34

항상 따스함을 느끼며..  
마음속에 항상 존경하면서도 짝사랑하듯 먼 발치에서 노짱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큰일 작은일 모든 세상사 함께 살아가는 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는 노짱님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노짱님과 함께 동 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항상 함께 살아감에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happykorea 2008.03.07 10:40

당신을 존경합니다. 민주주의 만세!!  
노무현님은 아직도 너무 젊으십니다. 이 나라의 등대가 되어 크고 작은 배들이 제 갈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ohara 2008.03.07 15:45

그립습니다....  
정겨운 말투 ... 부드러운 표정 .... 그리고 ... 미소 .. 함박웃음...마음속의 가족처럼 느껴지는 당신의 모습을 ....오늘은 그리움이란 단  
어로 표현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syun1006 2008.03.07 16:09

등산화 신고 부모님과 함께 꼭 방문하겠습니다.  
봉하마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주시니 꼭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가서 노 전대통령님도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사진도 함께 찍어주시겠습니까?  
너무 그립습니다.뵙고 싶습니다.늘 건강하세요^^

이상민9449 2008.03.07 16:15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2002년 대선에서 당선하셨을때가 생각납니다..우리도 이젠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학력도 학벌도 없는 그런분이 대통령에  
오를수 있다는 생각에 진한 감동이 밀려 왔었습니다..이젠 우리도 능력껏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구나...생각했었는데....저와 제 아이  
들에게 존경할수 있는 대통령으로 남아 주신점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학 2008.03.07 18:38

울봄 가기 전에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고급돌 2008.03.07 21:07

개나리떨때  
우리식구 모두 등산화와 침낭준비해서 한번가볼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행운목55 2008.03.07 21:14

봄 나들이 가겠습니다~~~  
등산화 신고 봄 나들이 가겠습니다. 봉화산도 오르고 화포천도 한 바퀴 두르고 온 좋으면 대통령님도 만날수 있겠지요.~~~기대가  
됩니다. 건강 하십시오.

프리덤 2008.03.08 02:17

그리운 지도자!!!  
당신께서 없으신 자리가 이제서야 크게 느껴집니다.....  
오래도록 우리들 곁에 함께 하여주소서^^

플랑기2 2008.03.08 03:41

한결같이 당신을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한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봉하에 가보고싶습니다..설령 당신을 뵈지 못하더라도..당신께서 오르고 사랑하시는 봉화산도 가보고 다정히 안내해주시는 화  
포천도 가보고...그걸로도 만족하고 행복할것입니다...그리고 봉하에 피게될 야생화와 어울리는 꽃씨를 뿌리러 가보겠습니다..

별명별 2008.03.08 10:23

꼭 가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맘. 일꺼라 생각하니 뿌듯하기 그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와요.

짐주 2008.03.08 10:47

짠  
광화문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아내와 두아이를 데리고 침묵의 촛불 시위를 한것이 었그제인데.. 노짱님 환송행사에도 못가고  
고향마을 환영행사에도 못가보고 이제 고향에 들어서 노짱님의 굶게 패인 주름진 얼굴의 미소를 보며 글을 읽습니다.. 죄송스런밤  
과 짜~안한 심정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노짱님 죄송해요.. 건강하셔야 해요.

이장69 2008.03.08 11:15

여기는 부산  
한번 마음먹고 가봐야겠습니다.  
대통령님도 보고프고, 봄 향기도 맡을겸 가봐야 겠네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늘 건강 하시고 행복하세요..  
왜 노무현 대통령님이 좋은지 ..ㅋㅋ 이상하게 끝립니다..ㅋㅋㅋ

Ally 2008.03.08 11:27

많이 늦었지만..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한번 찾아뵈고 싶네요^^  
재미 하시는 동안 실망했었던 적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 노통 만한 분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빈 자리가 이  
리 를 줄 몰랐습니다. 계신 그 곳에서도 국민을 위한 발걸음 멈추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원사 2008.03.08 11:31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대통령직 끝내시고 시민의 품으로, 그것도 시골고향마루에 함께 숨쉬고 부대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베로니카방 2008.03.08 11:59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보통주민으로 돌아 오신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마음을 가지고계신  
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보라도리3 2008.03.08 12:39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봉하마을과 노무현님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와 함께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나라  
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훌륭한 대통령이 역사책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며, 지금도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두대왈 2008.03.08 13:10

이임하시기 이틀전

봉하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현직에 계실때 아들과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달려 노을지는 석양무렵에 당도하였습니다. 환영 식 준비에 분주하시던 분들이 고마웠습니다. 이임하시는 것이 아쉬워 밤새고 기다려 월요일에 얼굴뵙고 오고싶었는데... 아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신념과 가치관이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당신을 믿습니다. 신념을 사랑합니다..

부림동촌늬 2008.03.08 14:21

어찌 이리 비교가 되시는지....  
어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오셨는지..  
가끔은 요령도 피우시고..세상과 더불어 사시지..  
혼자 그렇게 몰매를 맞으시고도 아무렇지 않게 견뎌오셨는지...  
지금의 청와대주인하고 어찌 이리 비교가 되시는지..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춘삼월 좋은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

dosl 2008.03.08 20:20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자랑스럽게 만드신분,,  
제생애 이런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합니다,,오래오래 건강하세요,,,노장님,,

에건아빠 2008.03.09 00:57

우리 아이들과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봄에 꽃이 피면 아이들과 대통령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고 아내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얼굴 한번 뵙 수 있는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사랑 2008.03.09 08:12

항상 건강하세요. ^^\*  
여기는 전라도 광주이고요 오늘에서야 가입했습니다. 봉화마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가면 노대통령님을 만날수 있었으면 더 좋겠지요?

세익크로버 2008.03.09 19:36

한번 찾아 가겠습니다  
한번도 만난적은 없지만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들,딸이랑 같이..

인생은단한번의철학 2008.03.09 20:58

다대포 에서..  
대통령님 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쟁반대 2008.03.10 14:01

봄맞이 같네요. 그런데..  
날씨가 더 풀리면 어머니 모시고 한 번 가보고 싶네요.

봉하마을에 놀러가서 재수종계도 뵙게 되면 어떻게 호칭을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미국영화 같은 것을 보면 대통령하고도 애청부르면서 격없이 얘기하는 모습은 정말 부럽더군요.  
직함에 앞서 모두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호칭을 해야 하는지.....

노무현전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보이고 또 너무 호칭이 길잖습니까?.%

단팔뿔 2008.03.10 20:58

넌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 간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내와 저는 꼭 노대통령님과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보로 물릴까 합니다.  
아마 후대에서는 내가 지금 나의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과 같이 있는 사진을 보는 기분을 느끼겠지요.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늘~푸른 소나무 2008.03.10 23:34

봄이 오나 봐여 ^^\*(여긴 경주입니다)  
밤 낮으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기 조심 하시고.  
봄 나물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 하세여 ㅎㅎ

ㅋㅋ 2008.03.11 11:43

여긴 충남 서산  
봉하마을 꽤 멀지만 가보고 싶습니다.

포럼 2008.03.11 12:06

너무 멋진 사람  
전에 좋아했지만 지금은 더 좋습니다  
넌을 생각하면 왠지 웃음이 나오구 기분이 좋아져요  
넌과 같은 하늘아래 산다는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하네요  
언제나 찾팅하시구여 꼭 봉하마을 찾아갈게요 ^^  
여기는 전라도 광주예요

이자벨 2008.03.11 12:30

봉화마을 꼭 가보고싶어요  
노무현님이 계신곳을 꼭 한번 가보고싶네요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존경해요.

지리산 1 2008.03.12 05:28

산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김해에 사는 산악회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산에 가실때 준비물-간편한 등산복,점심 도시락,생수,간식(과일,과자,오이,등),

샤워하다가그만 2008.03.12 10:54

가야지 가야지하면서 못가고 있어 마음만 전합니다.  
노장이 나오신 대선과 지난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라디오 21'에서 여균동 감독님을 못살게 군 사람입니다. 이임을 하시고 노장이 계신 곳을 가야지 가봐야지 하면서 마음뿐...이렇게나마 노장을 대하니 우선 설레입니다. 이 설레임을 가

지고 자주 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르곤 2008.03.13 11:51

답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봉화마을이랑 답았어요^^  
서민적이고 친근한 모습...인자한 모습...숨은 카리스마... 등  
저도 답고 싶네요...  
서민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대통령....  
작은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대통령....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당신께서 남겨놓은 발자취가 점차 진한 영상을 남을것 같네요...  
진정...당신께서는 "영원한 주군"입니다...서민들의....

루다 2008.03.13 12:49

간잔하게 일상을 소개한 글인데 어쩔 이리도 감동적일까요?  
전에 티비에서 청와대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청와대 있을 때 감해서 지냈는데 고향에 내려가서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자'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보태는 작업인데 새마을운동과 같은 활동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이는 분명 혼자 힘으로 하시는 것은 아닐 터. 전에 하신 걱정은 기우였나 봅니다. ^^

사진여행 2008.03.13 13:58

보고싶었습니다.  
보고싶었습니다.

노짱가 2008.03.13 16:04

친절한 노짱!  
친절한 무현씨^^ ㅋㅋ 자세한 안내 고맙습니다. 봉화마을에 대해 더 고나심이 갑니다^^ 봉화산과 화포천 꼭 둘러 보겠습니다 ^^

나비가되던날 2008.03.13 16:12

벌써부터 노짱이 그립습니다.  
노 전 대통령님- 이라 부르려니, 이미 다른 노 전 대통령께서 있으신지라 그 분과 구별하기 위해 '노짱'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예의없어 보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 호칭이 친근감이 있어 좋으니 이해해 주세요. 노짱께서 봉화로 내려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노짱이 그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봉화로 가고 싶습니다. 운이 따른다면 노짱을 잠시나마 뵈 수 있겠지요?^^

푸른안산 2008.03.13 18:38

과연 노짱 답습니다.  
가족들 손잡고 꼭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추천하신 코스를 그대로 답사해 보겠습니다. 덤으로 한 번 뵈 수 있는 행운을 갖으면 더 좋겠고요....건강하십시오.

새-날 2008.03.13 22:01

꼭 가보겠습니다^^  
빨리 기회가 되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위함 2008.03.13 22:10

충남 서산 위함올림  
작은 걸음으로 두뼘뼘 걸으시는 대통령님을 가졌다는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하도록 도와 주신 이명박 현 대통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로빈 2008.03.13 22:16

정말 친절하세요!!  
봉화산 처음 봐요. 비록 사진이긴 하지만..  
노짱께서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시니 친근감이 드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간다면 만나뵈 수 있을까요?  
보고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소금별 2008.03.14 05:10

귀찮기도 하실텐데...  
'나오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  
밖에 나가면 기다리는 사람들..에 귀찮기도 할텐데..  
글 속에서는 님의 따뜻함과 배려만이 느껴집니다. 저도 일른 가보고 싶어요.. ^^ '나오세요' 해볼까요? ^^

버들류 2008.03.14 13:51

5월 첫째주인 어린이날 저도 봉화마을 가요 ~~  
봉화마을에 남자친구랑 친구들이랑 여행가는데요  
나와주세요 ~~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 얼굴을 뵈 수 있는건가요?  
^\_\_\_\_\_^

노행복 2008.03.14 18:28

욕심많은아빠(본인)  
외동녀사랑하는딸이(11세)노무현대통령님의생가와얼굴을보며사진한장카메라의담고싶다고.투정부러보지만....언젠가는그날이 오겠지요~~~항상건강하세요.

우정남 2008.03.14 22:24

존경하는 인물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려서 부터 너는 누구를 존경하니 하고 물으면 나는 항상 머뭇거리다가 남몰 하는데로 링컨, 세종대왕 등등 머리속을 맴돌다가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이제는 거리낌없이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어디예요 2008.03.14 22:39

꼭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기에..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봉하마을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양통 2008.03.15 02:12

5년전 처음처럼...

우리마을에도 들려주세요. 배타고 빙기타고 제주랍니다. 제주도민들이 환영할겁니다.  
봉화산오를때와.. 제주오름오를때... 일단한번 오르시라니깐요 ㅎㅎ

칼피스 2008.03.15 09:25

봉화산을가다.  
봉화마을 복지관개관식날 대통령내외분을 뵈었지요  
그리고 악수까지 .  
그리고 정기가흐른다는 봉화산까지  
앞으로 행운이있을것같아요  
영광스런 날이었답니다 .  
건강하셔야합니다  
사랑합니다

쭈옹 2008.03.15 10:44

시간이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봉화산 오르는길에 노짱님도 뵈실수 있는 행운이 있길 바라구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바랍니다....., 참 많이 그럽네요...

티끌 2008.03.15 19:33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직장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장 기간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찾아가 얼굴 한번 뵈고 싶습니다.

사르미 2008.03.15 20:53

아름다운 습지를 잘 보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연으로부터 받는 사랑, 화포천의 습지를 잘 보존해 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그 곳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잘 보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원1 2008.03.16 09:52

꼭 뵈고 싶습니다.  
정말 형님같은 대통령님!!!  
꼭가서 뵈고 싶습니다.  
악수 한번 안해주시면 저도 봉화에 놀러왔어 살겠습니다.  
악수 함 해 주실때까지!!!!!! ㅎㅎ

대륜 2008.03.16 16:31

1박2일로...  
앗 싸아~~~1박2일로 봉하마을 꼭 갑니다.  
봉화산도 올라가고 멀리서나마 존경하는 대통령님도 뵈고 올겁니다.  
기다려주세요, 평일에 기차로 갑니다.

인디펜던트 2008.03.16 18:07

우리 식구들하고 한 번 꼭 가보고 싶네요.  
어머니, 처, 그리고 세 딸과 함께 꼭 봉하마을에 가보고 싶네요.

유니조아 2008.03.17 16:27

꼭 가보고 싶어요.  
언젠간 신랑이랑 꼭 가보려구요.  
제가 갔을 때 운 좋게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셨음 좋겠네요. ㅎㅎ

kingkong 2008.03.17 21:06

봉하마을 이장님께!  
일반 시민으로 돌아간 최초의 대통령, 마음 따뜻한 우리의 친구, 농촌에 사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 또 감사하고, 내가 지지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신 노무현님.  
대한민국 최초로 전직 대통령 경력의 이장님은 어떠신지요!  
건강하세요!(한번 저도 그곳에 꼭 가서 뵈고 싶습니다!)

소유희부 2008.03.18 12:08

곧 가겠습니다.  
4월 중순 즈음 꼭 가겠습니다...사진전을 준비 중이라 4월에 근처로 사진 찍으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램이 있다면...꼭 한번 뵈고 싶습니다.

아침공기 2008.03.18 15:37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에 제가슴이 따뜻해집니다...많은사람이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소탈하신모습으로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 오랜시간 뵈수있기를 기원합니다  
곧 찾아뵈도록 할게요~~~

해남 2008.03.19 13:14

평범함이 감동임을 아십니까?  
왜 당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대함을 내려놓고 평범함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에서 평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평범함의 힘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비전을 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힘과 비전을 보여주세요...

창창창 2008.03.19 19:09

꼭 찾아뵈겠습니다



...  
이 곳 저 곳 구석구석 둘러볼 예정으로 계획하겠습니다...ㅋㅋ

슈퍼탱크 2008.03.20 16:47

우리애들이 대통령님 보고 싶답니다...  
우리애들은 지금도 노짱님이 대통령인줄로 안답니다..물론 아직은 정치에는 관심없을 9살,4살 어린아이들이지만요..ㅋㅋ 주말엔 차가 많이 막힐것 같아서 주중에 휴가내서 갔다올 생각입니다.. 그뎨 나와주실꺼죠?? 꼭 뵙고싶습니다..

안동하회탈 2008.03.20 17:33

안동에서 봉하까지..  
바쁜일만 마무리되면 딸아이 손잡고 나들이 갑니다.  
정말 편한 마음으로 갈수 있겠습니다.  
2002년 노사모 모임가면 노란수건 쓰고 노란 티 입고  
인라인 타느라 정신없던 꼬맹이 녀석들이  
벌써 중3, 초등 5학년이 되었네요.  
그래도 탄핵 때는 아빠하고 같이 울었던 녀석들입니다.  
화려한 휴가 볼텐 아예 통곡을 하더라도요.

노짱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스쳐갑니다.....  
봉하 마을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보이네요.

암사라이더 2008.03.22 14:54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꼭 한번 시간내서 가족들과 다녀갈 생각입니다.  
좋아 보이시네요. ^^

올리브라떼 2008.03.23 13:32

하핫 노무현 대통령님 글 음성지원  
음성지원되나봐요 정말 ㅎㅎ

가평신사 2008.03.23 17:12

한번 뵙고 싶어요.  
이제는 꿈이 생겼습니다 대통령님의 동네에 가서 꼭한번 뵙고 사진도 한번 박고 싶어요.힘든 삶속에서 굳세게사시는 대통령 님이 친구인것 처럼 만나 보고 싶어요.봉하가면 꼭 손잡 한번 잡아 주시소 ...

대륜 2008.03.23 17:42

어쩔 이렇게 글을...  
정신 차려 읽고 또 읽어보니 어쩔 그렇게 글을 잘 쓰셨어요(죄송).  
아무리 대통령을 하셨지만 넌 잘 쓰셨어요.  
봄 벌에 따사로움이 여기저기 피어나고 화포천의 물풀이 너무 아름답네요.  
언제 가 봐야할지...마음 동 하는 날, 가방 하나 메고 등산화 신고 찾아가 뵙겠습니다.  
식구들 허락은 이미 받았으니까요. 앗~쌈 아~~~행복합니다^^\*

마라나타 2008.03.23 20:31

여수랍니다.  
멀지 않은 날 꼭 노대통령도 뵙고 봉화산 산책도 해 볼랍니다. 기회가 되면 권여사님과 데이트 하셨던 벗옆에 멧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이던 눈독길도 사랑하는 아내와 걸어도 보고 싶구요. 아련한 향수와 아름다운이 물씬 풍기는 대통령님의 글 솜씨 또한 대단하시네요. 봉화마을 잘 가꾸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모두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 여수에서 작은 것부터 노대통령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을달아 2008.03.23 23:55

감동입니다.  
저는 노전대통령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이 직접 쓰신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감동스럽습니다.

동네이장 2008.03.24 18:08

'이름'을 남기는 분이십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들 하대요.  
노짱님은... 진짜로 이름을 남기셨습니다..짱입니다요

1김산 2008.03.24 23:58

ㅎㅎ  
대통령님과 한 시대를 같이 호흡하여 살아 행복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사진 찍고 싶었던 욕구는 대통령님이 처음입니다. 봉하마을에서 기회가 있었는데.. 담엔 꼭 찍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기엄마 2008.03.25 13:26

눈이 아파요.  
나이는 사람들도 읽고 싶고 알고 싶고 자주 들락거리고 싶은데요.  
글씨 너무 작아 눈이 아파요.

노무현짱사랑 2008.03.25 14:56

애들 데리고  
곧 갑니다. 대문앞 관광은 당연하고 봉화산, 그리고 화포천까지...그래도 목적은 노 전 대통령님인데...

maskofangel 2008.03.26 08:46

지친 일상을 견어내고, 아직 희망을 느끼며..  
힘들때 찾아뵙고, 희망을 건져가는 소중한 곳이 여기 잇었군요.. 감사합니다..

조이피플 2008.03.26 12:56

보기 좋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조만간 꼭 가겠습니다.

마로보기 2008.03.26 14:03

존경을 포함니다.  
고향을 무척 사랑하시는군요.  
참 보람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뜰장군 2008.03.26 14:44

맘으로부터의 존경심을...  
전라도출신이라 님을 더더욱 지지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시에 기득권층이나, 조중동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았다면 전 아마도 실망했을겁니다. 사실 전 남들이 님을 욕할때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님을 존경하지 않거나 믿지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말주변이 약한관계로 저의 반박이 오히려 님에게 독이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행입니다. 주변에서 요즘 님을 욕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어서.....^^\*

남초당 2008.03.27 11:15

수구 꼴통입니다  
저는 노사모가 아닙니다.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이회창후보만 내리 세번 찍었습니다. 지난 5년간 사사건건 비판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가 노짱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노짱 기사를 접하면 속이 따뜻해 집니다. 이념과 관계없이 존경할 수 있는 분이 생겨서 모처럼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해진 것처럼 노대통령님도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보 2008.04.04 16:48

올바른 생각으로 국정운영을 하시었는데  
현정치는 보수수구세력들이 판을 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대륜 2008.04.09 19:10

바쁘게 살다가 잠시 짬을 내어...  
들어 와 이 글을 보면 어느새 마음은 한가로워 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날 대통령님의 희생으로 금뺏지를 달았던 분들이  
어떻게 될지...  
벚꽃도 만발하였고 봄비도 오는데...대통령님의 정성으로 심어진 장군차는 잘 자라겠네요.  
늘 건안하시길 빕니다. 노공이산님 화이팅^^^

대륜 2008.04.15 20:08

내 모습이?  
봄바람이 상큼하게 느껴지는 날이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시지요. 전 조금 우울했지요.  
우울할 때면 이 글을 읽기위해 컵에 앉아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요.  
그러다가 이 글을 읽고 있으면 마음은 어느새 평화로움이 찾아옵니다.  
지난번에는 합천 황매산을 다녀 왔는데 바로 옆인 봉하를 못 가 아쉬웠습니다  
꼭 찾아 뵈겠습니다. 건강하시어요^^^

나무술 2008.04.16 13:39

이 곳에 들를 때마다 희망을 봅니다.  
글을 읽으니 꼭 한번 봉하마을에 가 보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신 봉화산에도 오르고 화포천에도 가 보고요.  
아이들과 함께 꼭 찾아가서 그곳의 '참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대륜 2008.04.20 13:27

봉화산의 참 맛을...  
오늘도 한번 읽고 갑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한번씩 읽다보면 평온한 마음을 찾습니다.  
얼른 한번 다녀오고 싶는데...  
대통령님, 늘 건안하시어요^^^

송연낭자 2008.04.24 13:13

멋져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누가 뭐래도 제일 멋진 사람, 열심히 하신 대통령이셨습니다.

모래뜰 2008.05.09 16:14

아~! 그렇군요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님이 계셔서 더 가보고 싶습니다. 꼭 뵈러 갈께요 그때 봉화마을 설명 잘 해주세요..정말 존경합니다

대륜 2008.05.13 22:23

화포천...  
봉화산을 올라가다 마애불을 보였고,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는 봉화대도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화포천을 못보고 왔습니다. 역마살이 동 하거든 다시 한번 가 뵈렵니다. 상큼한 바람결도 느껴보고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을 ...'대통령님도 멀리서 뵈고요. 늘 건안하시어요^^^

그림소 2008.05.17 10:24

당신이 사는 대한민국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수 있는 이곳 작게는 봉화마을 크게는 우리 나라 더 크게 나가서는 이 지구가 다 아름다워 보이네요 ㅎㅎ

양촌어른 2008.05.18 19:56

이제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화포천을 지키고 계신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화포천처럼 국민의 건강을 걱정할 때입니다.

대륜 2008.06.02 22:39

언제 읽어도...  
노오란 병아리들이 놀고 있는 시골같은 글입니다.  
만남의 광장에 나오시느라고 먼지 때문인지  
대통령님께서 좀 야위시고 구릿빛(?)이 되셨어요.  
오늘은 비가 오시니 쉬시는지요.  
아니면 모내기에 좋은 꽃비라서 눈에 나가셨는지요.

산딸기도 무르익어가는데 다시 찾아가 봐드립니다.  
늘 건안하시웁기를 부처님께 기도 드립니다. 존경합니다.^^\*

apex 2008.06.04 19:37

사랑합니다 노짱  
그립습니다..노짱

일인자 2008.06.05 23:52

아버지  
젊고 강한 아빠라는 이유로 함부로 눈물 흘릴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강하고 당당해야 하니깐요...  
그런대 여기와서 둘러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적셔 옵니다.  
감사 합니다.

노력하는세상 2008.06.16 03:16

아 여기 스물셋살 여대생, 고등학생때부터 이미 노짱 팬이었다고 전해주세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마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역사가 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말이 정답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중심에서다. 2008.07.03 23:16

역시 친절하시네요..  
역시 친절하시네요..  
그렇게 많으신 일정에도 찾아오는 분들 걱정을 하시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 영원하시길 빌어요.

대륙 2008.07.19 16:27

이 글을 쓰실때에는...  
봉하는 환희와 평온함 이었는데,  
비가 쏟아지는 오늘은 마음이 좀 시렵니다. 무더위에도...  
'무심'으로 지내시리라 생각도 해보고  
휴가 마치시면 찾아 뵈기회도 마련해놓고,  
처음도 아닌데 들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휴가이신 봉하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지요^^\*

★우연히★ 2008.07.23 13:07

노짱님 최고!!  
대통령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뻔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우리 노짱님의 주름을 더 깊게 한건 아닐지...  
요즘 국가기독교관련 기사를 읽을때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저도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데 노짱님 심정을 어떨까요.  
모든 평가는 역사가 할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은 되지 말라고 가르칠겁니다.

노짱님 힘내세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구리목 2008.08.21 13:16

그토록 그리워하고 가고있던 어제의 봉하마을 가던길!  
너무도 짧은 주어진 시간에 벅차오르는 흥분과 감동을 억지로 참아내며  
님의 구수한 모습과 음성을 접하면서 한동안 벅찬 가슴속의 고통을 참아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도 존경했고 뵈고싶었던 분이셨기에 용안을 뵈는 그 찰순간은 온몸이 마비되는듯 전율이 흐르고...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표  
현력이 없어 어찌 다 어제의 벅찬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시간이없어 자세히 둘러보지도, 봉화산에도 올라보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조만간 다시 찾았을때 봉화산에도 올라보고 님의 내음을  
조금이라도 느껴 보렵니다.  
언젠가는 님의손도 잡아보고 함께 사진속에 담아 볼 기회도 생길 수 있겠지요^^  
머언 먼 뒤안길에는 아마도 후세 사람들에게 진정 국민을 사랑하셨고 약자의 편에서 옹호하고 용기있는 정치를 하셨다고 칭송하  
는 날이 반드시 올리라 전 확신합니다.  
님의 백성이되어 지냈던 지난 5년세월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처럼 굴욕적인 외교나 하고 퇴보된 정치를하는 분을 모시는 현실은 백성으로써 정말로 창피스럽고 막말로 쪽팔리기  
그지 없습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긴 여름이 지나가는듯 조석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두볼에 스치웁니다.  
환절기에 언제나 건강하시고 영부인님을 비롯한 온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복하소서.....!!

별이★ 2008.09.20 13:12

이번 시험 준비하는 것만 끝나면 봉하마을 꼭 갑니다. 봉화산도 오를거고요.  
노짱님 만나면 울어버릴지도 몰라요TTT

한과당 2008.10.02 12:50

저도 노공님의 음성이 들리는듯~^^\*

봉식이 2008.11.06 12:49

"...참 재미없겠다...고 생각되는데..." 말씀이 참 소박하고 미안한 마음이 깊이 베인 말씀인 거 같습니다.  
우선 노짱님의 스케줄을 미리 알아보고 가야겠지만 혹여 모르고 갔더라도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뭐...'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님이 우째 우리 노짱님을 닮았을까...우리 노짱님도 세계의 대통령이 되실 수 있었  
데...못할 거 없으신데...우짱든동 괜시리 힘이 납니다.

돌틈바위 2008.12.05 23:46

갈수록 더 정겨움이 묻어나는 노짱님^^(대통령님께 이래도 되나물려유^^...잡아가지는 않죠? ㅎㅎ) 글을 읽고 있으면 마치 환청처럼 노대통령님의 목소리가 귓전에 들리는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님 이니까요 ^^

대륜 2008.12.14 21:35

봉하의 향기가 무뎠 베어있는 대통령님의 글을 읽고 또 읽어도 포근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올 겨울을 납니다. 늘 봄이 올때면 누가 못오게 해도  
오는 봄을 빨리 맞고 싶습니다. 우울한 겨울을 보내 줄 봄을...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노력하는세상 2009.02.18 15:28

가고싶네요 ^^~ 그 곳!!  
나이가 하나둘씩 먹어가니( 그래봤자 24^^죄송;;)  
자연이 좋고 산이 좋고 들이 좋고 시골이 좋고 그런데,  
언제 한번 짬을 내어 봉하마을에 들러보고 싶네요~  
사진기 하나 들고 // 와~ 신난다♥

노력하는세상 2009.02.18 15:29

아참,이 글 올리신날이 3월 6일!!?(제 생일이네요 ^^ 와~ \*)

키티 2009.04.13 21:32

봉하마을에서 참 재밌게 사시네요! 늘 웃으시는 사진을 보시니까 제 마음도 좋습니다♥

봉화짱^^ 2009.04.29 16:48

멋있네요^^

료니양 2009.05.01 03:47

노간지... 노대통령님 너무 멋지세요^^

김주경 2009.05.23 19:19

늦었지만 뒤늦게나마 가보겠습니다...

hwhksh 2009.05.23 20:41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짱어페어 2009.05.23 21:55

존경했어요...  
역사가 평가할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고...

happymj 2009.05.23 22:20

추억이 있는 그 길을 따라 편안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합니다노무현대통령님 2009.05.23 23:53

봉화마을...  
멀리 있지만 꼭 가보겠습니다.

.....

ㅌㅌ

꼬마빛 2009.05.24 00:02

저도 꼭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대통령님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victoryman 2009.05.24 09:19

이렇게 인간적인 분이셨는데... 늦었지만 꼭 가보겠습니다.

nozzang!! 2009.05.24 10:28

꼭 가보기로 약속드릴께요..  
하지만 가도 반겨주실분이 없다고 생각하니 ㅌㅌ

evprimrose 2009.05.24 12:11

가슴아픕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진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소중한 그 뜻을 그분 혼자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할 때인거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겐 실천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실천한다면 그 분께서는 언제나 우리곁에 있을 것입니다.

cielo 2009.05.24 13:40

선택하신 길의 끝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욱 더 열심히 살아갈 예정입니다.  
김해는 이틀째 해를 감춘 날씨속에 허망함이 온 마음을 휘감고 있는듯 합니다.  
내일은.. 찾아뵙겠습니다.

배우헤림이 2009.05.24 13:44

꼭...가보겠습니다..

슬퍼요슬퍼 2009.05.24 17:46

꼭 가볼게요

늦었지만.. 기다리세요.....

이쁜이76 2009.05.24 20:11

생각하면 할수록 맘이 넘 아픕니다...그리고 꼭 가보겠습니다...  
봉화산..화포천..자꾸 눈물이 나려고합니다...  
좋은곳에서 편히쉬세요...

진정한님 2009.05.24 20:50

진작 회원으로가입했을 것을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우리 대통령 높이신 분이라기 보다 얼마나 사소한 것에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풀환포기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소시민 같은 우리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디계십니까? 진작 가입할 것을 멀찌감치서서 늘 응원만했습니다. 너무 맘이 아파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대통령 . 다시는 우리대통령 같은신분 없을 것입니다.

눈물계속난다 2009.05.24 21:30

이젠 가도 대통령님을 볼수 없다는걸 생각하니..마음이 아파옵니다...  
꼭가보겠습니다...

이서윤 2009.05.24 21:42

언젠가 꼭 찾아 뵙고 싶었는데..

메카 2009.05.24 22:48

네 가겠습니다 ㅠㅠ  
노 전 각하께서 이렇게 추천하시고 자랑하시는데  
꼭 시간 내어서 구경하겠습니다

근데 댓글 쓰는내내 손이 떨려서 잘 안써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ㅠㅠ  
제 손이 이상한건 아니죠?

대답해 주세요 각하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

시작하는사람 2009.05.25 02:52

꼭 한번 내려가서 뵙고싶었습니다..  
이제 직접 뵙 수는 없지만, 꼭 내려가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시고 추천하신,  
그 곳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셨을지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상은 우리 뒷세대들이 책임지고 만들어가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물꽃요정 2009.05.25 08:37

이 홈페이지도, 노무현이라는 분의 소박함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는 뵙 수 있을줄 알고 멀리서 당신을 응원만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담아 추모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요? 역시 진실된 분의 뉘뉘이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법인데..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지 그랬어요...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보라바로 2009.05.25 11:35

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우리 대통령이셨던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보고싶다

어랑아랑 2009.05.25 13:59

2달있으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아이가 어느정도 컸을때 꼭 한번 데리고 갈게요. 가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훌륭한 분이 계셨단다'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하늘에서 대통령님께서 추천하신 곳들을 잘 지켜주세요~ 그때 뵙겠습니다. 보고싶습니다....

행복한사랑 2009.05.25 17:17

노무현 대통령님 흠뻑 글을보고 여직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요 글을 대충 보고 마음이 넘 아픕니다 봉하 마을에꼭 한번 가겠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부디 편히 쉬세요

sallycool 2009.05.25 18:49

아이와 함께 꼭 들러보겠습니다.  
보고싶습니다.

노짱뽀 2009.05.25 20:18

농촌체험갈려고 했는데...노짱뽀하고 같이 보내기 좀 해볼까해서..ㅠ.ㅠ  
많이 허전할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12 2009.05.25 20:38

보고싶어요...노전대통령님..국민으로써..정말사랑했습니다..

from 리움 2009.05.25 23:33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일은 많은데..  
어디계세요..보이질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때 아버지 돌아가시고..처음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찾아 헤매입니다..  
어디계세요..  
봉화산..화포천은 어찌하라고..  
어디계세요..  
벌써..그렵고..  
벌써..보고싶으니..어찌면..좋나요..  
보고싶습니다..  
내가..뽀은..

유일에..대통령..노짱!!

찌간이 2009.05.26 00:29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진작 왔어야 했는데 넘 늦어버렸네요..  
아직도 대통령님에 음성이 부드러우면서 힘있게 자꾸 맴돕니다  
어찌면 좋나요.. 시간은 돌이킬수 없으니..차암 허탈하네요  
보고싶음에 목놓아 울고싶어도 넘서러워 목이 매여 옵니다..  
다시한번 뵈면 이번에 꼬옥 놓아 드리지 않을까요.. 부디..

후~ 2009.05.26 01:51

아쉬움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꼭 대통령님과 건뚝 건졌습시다  
늦어서,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자다운남자 2009.05.26 07:09

노무현대통령글을 보니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일은 많은데.  
지역시 할 말이 많은데 할수도 없고.  
하늘 나라에 가셨서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

생물선생님 2009.05.26 09:23

좋다고 자랑만 하시고, 그냥 가시면 어쩡니까? 계획만 세워 놓으시고 그냥 가시면 어쩡니까? 잠잘 곳, 먹을 곳 마련해주신다면서요.  
1박2일 가족여행 세워났었는데, 우리 애기들한테 대통령님의 얼굴 보여드리고, 목소리 꼭 들려주고 싶었는데, 이리 허망하게 가십  
니까? 어제오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눈만 빨개지고, 이게 뭐니까? 대통령님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  
깝고 서글프고 가슴이 저릿저릿하여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일찍 가릴지 못한 제 게으름만 탓하고 있습니다...TT

청청정정 2009.05.26 14:23

정말 보고 싶어요..  
눈물이 자꾸만 흐르네요..

소중하고 귀하신 분.. 하늘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네요..

너무 아쉽고.. 아무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끄럽지 않은 한사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개비 2009.05.26 17:18

사랑합니다.  
뵙고 싶습니다.  
살아 생전 왜좀더 격려해드리고  
왜 한번더 지켜봐 드리지 못했는지  
원망만 가득합니다.  
대통령님의  
글귀를 볼때마다  
부드럽고 힘있으신 그목소리 쟁쟁하고  
아이처럼 부드러우신  
그미소가 눈앞에 살아계신듯  
그려 집니다.  
부디  
부디  
계신 그곳에선  
평화와 자유를 맘껏 누리시길  
간절히 빌고 또 빌어봅니다.

다랭 2009.05.26 20:03

지금 가도 계신 것 맞죠?  
이야기 나누고 사진찍고...그럴 수 있는 거 맞죠?

별이가득 2009.05.26 21:25

생전에 찾아뵈길..TT 너무 늦지 않게.. 찾아뵈게요..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서민이 사랑한..유일의 대통령님...

향기향미 2009.05.26 21:34

"아름다운 숲, 자연학습 환경, 재미있는 운동꺼리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짱님..대통령님..

psy2470 2009.05.27 01:06

왜 이제서야 저는 이사이트를 알게 되었을까요?생전에 찾아뵈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아버지!

별비가 2009.05.27 02:10

순수한 우리의 아버지 제 마음에 당신을 영원히 잊지못할거예요  
저도 꼭 가볼게요 당신께서 있는곳이니까요

밋연 2009.05.27 03:04

그리도 자랑하셨던 아름다운 곳에 영원히 잠드신 대통령님, 그간의 답답함, 힘들 모두 떨치시고 언제나 웃음 가득한 그 모습 그대로  
계실거라고 마음으로 답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께 주었던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투표 2009.05.27 07:06

좋은곳이네요

미소천사2001 2009.05.27 09:46

너무나 죄송합니다...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눈물이 주무룩 흘러 내립니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어요... 꿈이 있으면...

면목없는국민 2009.05.27 10:29

봉화마을가서.. 꼭 당신을 느끼고 싶습니다.. 찾아 뵙겠습니다...

못잊어생각이나겠지요 2009.05.27 11:57

그 동안 무관심했던게 죄스럽습니다. 언제라도 봉하 마을가서 살고 싶었는데 당신인 안계신 봉하마을은 너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2009.05.27 22:50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큰분을 알아뵙지 못한 우회함을 수천번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울보a 2009.05.28 05:28

무관심.. 참무서운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예전에 무관심했습니다.. 수천번 사죄해도 모자를판입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꼭 찾아 뵙겠습니다.. 봉화마을.. 가슴속에서 외칩니다..

님의 이마주름이고파~ 2009.05.28 18:48

가서 님의 발자취라도 느끼고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바보\_사랑 2009.05.29 15:04

우리가 모시기에 당신은.. 너무 크고 곧으신 분이셨나봅니다. 하지만 작은것에도 행복을 느끼시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더는 뵙 수 없지만 당신의 뜻은 가슴속에 늘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신이 있어 잠시나마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씨엘르 2009.05.29 21:58

왜 전.. 항상 한 발씩 늦는 걸까요?  
당신의 살뜰했던 보살핌의 따뜻함을 왜 전 이제사 알게 된 걸까요?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죄송합니다..

루지아나 2009.05.30 01:06

당신이 사셨던곳....올애들과 꼭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국민 사랑을 이제야 느껴보네요. 죄송합니다..노무현대통령님..

구슬모 2009.05.30 08:14

꼭 가볼게요. 봉화산 화포천 봉하마을 노장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그곳... 사랑해요 죄송해요. 권여사님 힘내세요.

지수승호네 2009.05.30 08:53

꼭 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발자취를 느끼며...봉화산에 올라 보렵니다..

봄나미야 2009.05.30 10:04

한결음 한결음 당신의 체취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꼭 방문해서 님이 사셨던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세상을 보고싶습니다.

엄마니까 2009.05.30 10:38

봉하마을에 가고 싶었는데.. 그곳 봉하에 항상 계실것 같아서.. 든든했는데.. 이제 그곳에 가면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아 있겠군요...

차차맘 2009.05.30 10:53

둘째 아이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을쯤에나 가보려고 했는데, 어쩜 좋은가요. 그래도 남편은 꼭 가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자고 합니다.

차차맘 2009.05.30 10:55

먹을 곳 잠잘 곳 마련해주지 않으셔도 꼬옥 당신 잠든 곳에 가보렵니다. 많이 그립습니다.

행복 사랑 2009.05.30 11:32

아직은 어려운 형편 아직은 너무 어린 우리아이들 그래도 시간이 좀더지나고 당신의 향한 아픈마음이 조금더 진정되면 꼭 봉하마을에 한번 내려가서 당신이 추천해주신 그곳 바라보고 대통령님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오렵니다 이렇게 자상하게하나한 코스까지 설명해주셨는데 멋진산 멋진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노으시고는 ....

이제와서 2009.05.30 14:30

글읽으면서 목소리도 같이 들려요.....그리워요

팔귀76 2009.05.30 18:36

저두 목소리도 같이 들려요.... 진짜~~ 보고싶어요~~

원둥이37 2009.05.30 19:16

오래 오래 사셔서 계속해서 봉하마을 예쁘게 가꾸겠다는 그 약속 지켜주세요... 살아생전 가보지 못해서, 뵙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죄송합니다..... 사랑한단 말도 단 한 번 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륙 2009.05.30 20:56

아무런 볼 것 없는 산촌을 그리 좋아하시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립습니다. 가슴 시리게...  
그래도 가끔씩 들려  
대통령님께서 사랑하시던  
봉하와 영부인님을 뵙고

건안하심을 빌겁니다.

천상에서도  
봉화가 보이시는지요...

버섯소녀 2009.05.30 21:16

과제해야하는데 글읽는 재미에 과제를 못합니다. 목소리가 아직도 선하게 들리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못 가곤 봉화마을 우리의 몫으로 두신거라 여기고 틈틈히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등산화 꼭 신고요...

찬란한유산 2009.05.30 21:40

당분간은 봉화산에 못오를 것 같아요... 언제가 초월해지면 그때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봉화산이며 화포천 그리고 여사님과 다정하게 거닐던 들길을 걷고 싶습니다.

대어조사 2009.05.30 22:38

어찌하오리까?  
참으로 면목없는 당신에 국민입니다.

그분의딸 2009.05.31 13:31

대통령님..  
내년, 내후년에도 계획이 짱짱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대통령님 미워...T T

세계최고의인간 2009.05.31 18:03

보고 싶어요 대통령님 아 청와대에 실제로 불려고 갔는데 T T 초등학교 5학년때 그게 몇년이 지났는지...T T T T 그때 한번 계셔야 조 T T

cellook 2009.05.31 19:57

아 정말 아깝다. 이제야 땅을치는 우리들..

Manontanto. 2009.05.31 21:30

이제 그만 슬퍼하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보다 살기 좋은 곳, 신명나는 곳에서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요.  
시간이 나면 학우들과 한 번 찾아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따뜻한 웃음, 가끔 던지시던 재미난 농담들...  
이 엄청난 상실감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노짱해바라기\*\*\* 2009.05.31 21:31

살아계실 때 꼭 한번 찾아가고 싶었는데..일때문에..멀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어찌..이리..급하게 가셨어요~살아계셨을때 함께 등산하는게 제 소원이었거늘..제발 어디선가 살아계시다고..그렇게라도 믿으면서 살면 안될까요?

anjh9812 2009.06.01 04:13

왜 진작 이런글을 읽지 못했을까..  
다음글이 없다는것에 마음이 아파온다..

이쁜이슬이별이 2009.06.01 10:16

당신이 계시지 않지만 봉화마을 꼭 찾아서 당신이 말한 봉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오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부엉이 날다 2009.06.01 12:42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계신 그곳에서 행복하세요...

봉화마을을 알다 2009.06.01 13:16

이렇게 소박하고 이렇게 꼭 필요한 분을 .... 보기 힘든 분이었는데...항상 가치있고 꼭 필요한 사람은 검은 그림자가 항상 노린다는 걸 몰랐어요. 지켜드려야 하는데, 너무 소중한 분을 잃어버리고 나서 또 가슴칩니다. 인생의 실수들, 몇 안되는 치명적 실수 를 하고 나서야 눈이 뜨입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하지 않기를 바라며...

햇살비추미 2009.06.01 22:44

당신이 그림습니다

보고또보고싶은 2009.06.02 00:10

저의 무심함을 용서하세요. T T

해피모아 2009.06.02 12:36

너무 늦게 왔네요.. T T T T  
이곳에서 글을 읽으면 입을수록 더 당신을 사랑하게 되네요..  
사랑합니다~~~~~

하나의소원 2009.06.02 21:38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대통령님의 꿈을 꾸고 태어난 나의 아들을 보여주고싶었습니다.. 너무 늦었나봅니다. 당신이 고뇌하고 힘 들어할때 방관자만 될수밖에없었던 제가 죄스럽네여... 그렇게 사랑하던 봉화산이었는데~~~~~

둘체비타 2009.06.03 01:02

보고싶습니다. 당신의 글을 대하고 있으니 또 눈물이 왈칵 나오려 합니다..아버지 같은 분...전 그런 느낌입니다..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맘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푸르른들판 2009.06.03 10:20

이런 소중한 꿈을 가지고 계셨군요,,, 지켜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당신을 제가슴속에 묻었습니다.

쫄맨이쁜이 2009.06.03 10:48

비가 오는 오늘은 당신이 너무도 사무치게 그림고 보고 싶습니다..

하얀비둘기 2009.06.03 12:24

오늘도 당신의 흔적찾아 여기저기 헤메입니다.....  
당신은 정말 정치를 해서안되는 분이셨나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감성을 가지신분이..  
야비하고 영악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에게서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 너무 분합니다.  
시간을 되돌릴수만 있다면.....

늘푸름123 2009.06.04 02:09

봉하마을을 정말 사랑하셨군요..  
짐작 이곳에 들어와 좋은글을 접해볼걸  
후회스럽습니다 .....

탱순 2009.06.04 14:30

남을 잃은 후회로 뒤늦게 가슴을 칩니다.흑흑흑...  
이렇게 고귀하신분을 우리가 잃다니...  
가슴에 피눈물이 내립니다.

kpoop 2009.06.04 17:13

이글을 쓰신편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진작 봉하마을을 한번 다녀올걸..이제서야 후회가 물려옵니다.

브리켓 2009.06.04 18:43

보고싶어요. 돌아와달라고 외치면 다시 돌아와 주실 것 같은데..염치없이 그럴 수도 없네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응원했어요. 그 소리가 너무나 작았던 것 같아 죄송하고..너무너무 보고싶어요.

olive1004 2009.06.05 10:24

후회하는 지금 이순간이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정말 그런가요??

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한 번 가봐야겠네요~~ ㅠ.ㅠ

나도바보입니다2 2009.06.05 15:09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했기에 철새들을 다시 불러 들이고, 화포천을 가꾸고,이런 저런 계획이 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꼭 봉하 마을을 다녀올게요.

ㅠ ㅠ ㅠ ㅠ ㅠ ㅠ ㅠ 2009.06.05 21:59

이런 소중한 계획들을 꿈꾸셨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지금은 어디계신가요? 보고싶습니다...

beaconlight 2009.06.07 02:20

봉화산을 소개하시는 대통령님의 글이 제 마음을 또한번 찢어지게 하네요. 그 좋아하시던 봉화산자락으로 몸을 던지셨다니요...당신은 여전히 거기 계시겠지만, 이제는 만날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계시네요...당신때문에 너무 아픕니다...그럽습니다...사랑합니다...노무현대통령님...

dd3938 2009.06.07 09:55

이제 우리가 봉화산을 가꾸어 나가자구요. 친일파들은 쪽빠리가꾸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가꾸어 아름다운 우리나라 만들어보자구요

넘향한 2009.06.08 00:25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떡떡합니다..

참여국민 도로시 2009.06.08 10:36

23일로부터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흘렀는데 아직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보내드린다고 말했지만 아직 저는 보내드린게 아닌가 봅니다.

봉하마을 참 맛을 꼭 보러 가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인사드리러 갈 테니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ㅠ ㅠ

Callie 2009.06.10 08:47

다 꿈이었던 좋겠습니다.  
그냥 노대통령님이 돌아가신... 악몽을 꾸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Rhoforever 2009.06.12 09:59

2008년 3월 6일 노무현 -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으신거 보면, 정말 눈물이 핑돌아요.. 그곳에서 안녕하시지요? 권양숙 여사님도 힘내세요!!정말 화이팅~~!! 분명히 천당가셔서 잘 계시게요~ 힘내세요!!

luckyjegy 2009.06.22 14:15

애들 방학하면 여유있게 가려고 미루다가 이렇게 뒷북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많이 그럽습니다 보고싶어요

푸른소나무@ 2009.06.22 20:37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실분이었는데.....  
농촌과 환경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셨는데.....  
퇴임후 모범적인 전직 대통령으로 행복하게 국민들과 살게 그냥 좀 내버려두지..  
정말 신이 있기는 한걸까?

bbosongy81 2009.06.22 21:30

보고싶다는 이 말 밖에는...

기주엄마 2009.06.24 14:03

노장님 어디에계신들 저히는 함께숨쉬고겿신다고 밋고심습니다

안녕히지나셨어요

민주화의 기틀을 닦아놓고쉬시는지금 현정권은 편히일하조 하지만 하는풀이란

국민들의 눈코입 다 막으려합니다"힘없는것들놀려버리자."란 식입니다

대통령님 저희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쉬셔야하는데 그래도어쩌나요노장님의백성인데요 쟁님안녕히게세요

날아라오금동 2009.07.03 23:17

대통령님 지금어디에계신가요 이제야 글을 차례차례읽으려합니다 눈물이 왈칵쏟네요 목이 메이네요 조금만 빨리알았다면 ... 다시 돌릴수만있다면

일편단심노장 2009.07.08 15:37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시간 날 때마다 가족들과 찾았습니다. 사계절과 매일 매일의 봉화에서 대통령의 흔적을 느끼고 대통령님이 추구했던 가치를 새기며 실천하는 대통령의 국민이 되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내일이 49제라고 하는데도 왜 이리 실감이 나지않고 꼭 계절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지요? 아직도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련 가슴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86 2009.07.09 22:45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님!!!! 울컥한 마음에 님의 글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편히 잠드소서.....

Levin 2009.07.10 16:45

이제 다신.... 당신께서 글을 올리시는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니... 왜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신가요... 보고싶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해토르 2009.07.11 10:25

꼭 들려볼게요~~~

바쁜일상 2009.07.12 17:21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꼭 들르겠습니다

노장님!!편안히 쉬십시오

무명민초 2009.08.05 17:37

예전에 당신인 신분이실때 봉하마을로 님의 흔적을 찾았었습니다.집사람과 두 아이를 데리고요..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당시 전 대구에 살았는데(지금은 일거리 때문에 울산에 삽니다만) 대부분 친척들이 무조건 만나라 후보 얘기할 때 전은 힘을 다해 가족을 설득한 적 있습니다. 짧은 삶과 언변으로요.

그했는데. 아!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 후로 봉하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 한번도 님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이렇게 한스럽게 가시다니..제 생애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분이셨는데.. 백범 선생님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슬픈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담에 또 뵈겠습니다.

책노트 2009.08.27 04:47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던 진실한 대통령

국민들의 벗..아..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 생전 그 따뜻하고 멋진 미소 전 잊을 수 없어요.

대통령님~당신을 사랑하는 국민들 모두와 우리들은 언젠가 다시 만나

웃을 수 있겠죠? 사랑합니다.

세잎클로버 2009.08.28 23:17

이때가 참 행복했는데... 잉~ 대체 어디에 계신건가요?

거정 2009.11.27 13:43

어서 빨리 돌아오세요.

드릴말씀 있습니다

대통령님...

손평쓰기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18	글을 올려놓고 보니 (237)	61593	노무현	2009.02.22
17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58)	67554	노무현	2009.02.22
16	한국정치학회와의 대담 (45)	32567	운영자	2008.10.16
15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53)	30594	노무현	2008.10.02
14	회원 게시판은 30,000번째 글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304)	124593	노무현	2008.03.27
13	생활의 작은 기쁨 (185)	128080	노무현	2008.03.09
현재글	봉하마을 참 맛을 보고 가세요. (252)	148184	노무현	2008.03.06
11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119)	124446	노무현	2008.02.29

10	안녕하십니까-봉하에서 띄우는 두 번째 편지 (311)	163015	노무현	2008.03.03
9	부산 개성교(부산상고) 총동문회 (61)	60251	운영자	2008.02.29
8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인사말(봉하마을) (60)	31571	운영자	2008.02.26
7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환영행사(밀양역) (30)	21640	운영자	2008.02.25
6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 노무현의 민주주의론 (48)	60556	노무현	2008.02.20
5	대통령 한 사람 힘으로 역사발전하는 것 아니다 (11)	13964	운영자	2007.11.11
4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5)	6483	운영자	2007.10.18
3	정치·복지·언론 후진국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4)	4707	운영자	2007.06.08
2	시민주권사회 위한 참여운동 펼치자 (7)	7097	운영자	2007.06.02
1	국방·외교·안보·통일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20)	27257	운영자	2006.12.21